

“나는 양들의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받고, 또 드나들며 풀밭을 찾아 얻을 것이다.” (요한 10,7,9)

제1독서

사도 2,14-36-41

〈하느님께서서는 예수님을 주님과 메시아로 삼으셨습니다.〉

화답송

시편 23(22),1-3-3-4-5.6

(◎ 1)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내 영혼에 생기 돋우어 주시네. ◎

○ 당신 이름 위하여 나를 바른길로 이끌어 주시네.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당신 함께 계시오니 두려울 것 없나이다. 당신의 막대와 지팡이, 저에게 위안이 되나이다. ◎

○ 원수들 보는 앞에서 제게 상을 차려 주시고 머리에 향유를 발라 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옵니다. ◎

○ 제 한평생 모든 날에 은총과 자애만이 따르리니,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다. ◎

제2독서

1베드 2,20-25

〈여러분은 영혼의 목자이신 그리스도께 돌아왔습니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복음

요한 10,1-10

〈나는 양들의 문이다.〉



나는 양들의 문이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¹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양 우리에 들어갈 때에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자는 도둑이며 강도다.

²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들의 목자다.

³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 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

⁴ 이렇게 자기 양들을 모두 밖으로 이끌어 낸 다음,

그는 앞장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른다.

양들이 그의 목소리를 알기 때문이다.

⁵ 그러나 낯선 사람은 따르지 않고 오히려 피해 달아난다.

낯선 사람들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⁶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하였다.

⁷ 예수님께서 다시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들의 문이다.

⁸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모두 도둑이며 강도다.

그래서 양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⁹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받고,
또 드나들며 풀밭을 찾아 얻을 것이다.

¹⁰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올 뿐이다.

그러나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고 왔다.”

복음 묵상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을 ‘문’에 빗대어 드러내십니다. 그리스 말에 ‘문’은, 안팎을 구분하는 개념의 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 드나드는 ‘통교의 자리’를 가리킵니다. 통교하는 문은 안팎을 넘나드는 자유로움을 선사합니다. 그 자유 안에서 예수님과 신앙인은 서로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서로를 닮아 가며, 서로를 통하여 생명을 공유합니다.

‘문’은 그래서 서로를 향한 ‘길’이 됩니다. 길을 걷다 보면 목적지에 다다르고 그 목적지에서 목자와 양들은 서로 만나 풀밭의 행복을 누립니다. 그러나 길을 벗어나 걷게 되면 힘들고 불편해서 목적지에 다다르기는커녕 자기 존재마저 부정하기에 이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나는 무엇을 해도 안 돼!’ …… 자신의 능력이나 의지를 탓하며 세상살이마저 내려놓을까 고민하기에 이릅니다. 고민의 끝은 결국 자신 안에 갇혀 버리는 외톨이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진정 자유롭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제대로 된 ‘길’을 찾아 나서는 것이어야 합니다. 자기 스스로 만든 ‘길’이 아니라 통교와 소통, 그리고 서로를 살찌우는 생명으로 열린 길이어야 합니다. 서로의 생각이 다른 것은 당연한 이치인데, 다름을 같음으로 만들려고 떼쓰듯 덤벼드는 완고한 투정을 내려놓고, 서로에게 마음을 여는 일이 예수님을 찾는 일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신앙한다는 것을 자기 삶의 만족이나 욕망의 충족으로 폄훼하는 어리석음을 더 이상 용인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신앙은 서로의 목소리를 애써 꼼꼼히 듣는 이들의 여유 안에 풍성한 생명으로 거듭납니다.

〈박기석 사도요한 신부〉

성소 주일

해마다 부활 제4주일은 ‘성소 주일’이다. ‘하느님의 부르심’인 성소(聖召)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오늘 지내는 성소 주일은 사제, 수도자, 선교사 성소의 증진을 위한 날이다.

성소 주일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진행되던 1964년 바오로 6세 교황이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 주십시오 청하여라.”(마태 9,37-38)라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정하였다. 이날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성소를 계발하고 육성하는 일에 꾸준한 기도와 필요한 활동으로 협력해야 할 의무를 자각하게 하는 기회가 되고 있다.

성소에 관한 표현들

- 고통, 감사, 용기, 찬미 -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아르스의 본당 신부 요한 마리아 비안네 성인의 선종 160주년을 맞이하여 지난해 8월 4일 사제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저는 사제들에게 전하는 감사와그들 직무에 보내는 지지를 **고통, 감사, 용기, 찬미**, 이 네 가지 핵심 단어들로 표현하였습니다. 성소 주일을 맞이하여, 저는 다시 한번 이 표현들을 살펴보며 하느님 백성 전체에게 이번 성소 주일 복음 구절의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복음 구절은 티베리아스 호수에서 폭풍우 치던 밤에 예수님과 베드로에게 일어난 특별한 일화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마태 14,22-33 참조).

제자들이 호수를 건너는 이 장면은 우리 삶의 여정을 연상시켜 줍니다. 실제로 우리 삶의 배는 천천히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배가 안전한 항구로 이끄는 등대의 불빛을 쫓아가는 대신에, 환영에 현혹되어 버리거나, 난관과 의혹과 두려움이라는 맞바람이 불어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이 힘겨운 여정에서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말해 줍니다. 주님께서는 파도로 심하게 출렁이는 물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분께서는 파도치는 물 위를 걸어 당신을 만나러 오라고 베드로를 초대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물에 빠져들기 시작하는 것을 보시고는 그를 구해 주십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배에 오르시고 바람을 그치게 해주십니다.

그러하기에 성소에 관한 첫 번째 표현은 **감사**입니다. 올바른 향로를 향하여 배를 저어가야 하는 과제는 그저 우리 노력에만 맡겨진 일도 아니고, 우리가 선택한 여정에만 달려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그 무엇보다 이는, 높은 데서 오는 부르심에 대한 응답입니다. 우리가 도달해야 하는 목적지인 건너편 강가를 가리키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 배에 오를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도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는 한편, 키잡이가 되시어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에게 방향을 일러 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마음을 열어 감사를 드리며 하느님께서 우리 삶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깨달을 때려야 우리는 성소를 발견하고 받아들일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 다가오시는 광경을 보고 제자들은 처음에는 유령이라고 생각하고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들을 안심시켜 주십니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태 14,27). 이 말씀이 우리의 삶과 성소 여정에 언제나 함께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말씀이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두 번째 표현인 **용기**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나러 오시어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또한 고통에 관하여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저는 이 고통이라는 단어를 **고단함**이라는 말로 다르게 표현하고자 합니다. 모든 성소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걸을” 수 있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평신도, 사제 그리고 축성 생활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성소를 통하여, 우리가 자신의 삶을 책임지고 복음을 위하여 봉사하는 데에 우리 삶을 바치기를 주님께서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구체적 성소에 따라 살아갈 때에 역풍이 우리를 치켜 쓰러지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고단함을 알고 있습니다. 때때로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는 고립감, 성소의 강렬한 불꽃을 차츰 사그라들게 만드는 타성에 젖어 버릴 위험, 우리 시대의 불확실성과 불안함의 무게, 미래에 대한 걱정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용기 내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유일한 주님이심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분은 손을 내밀어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과도 한복판에서도, 우리의 삶은 **찬미**를 향하여 열려 있습니다. 찬미라는 이 말이 제가 여기에서 말하는 성소에 관한 마지막 표현입니다. 찬미는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같은 내적 자세를 함양하라는 초대이기도 합니다. 성모님께서서는 당신께 머무신 주님의 눈길에 감사드리고, 두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간직하시며, 용감하게 당신의 성소를 받아들여, 당신의 삶이 주님을 향한 영원한 찬미의 노래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벗들이여, 특히 이 성소 주일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일상 사목 활동을 통해서도, 교회가 계속해서 성소를 증진할 수 있기를 당부합니다. 교회가 우리 신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자신의 삶에서 하느님의 부르심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발견할 수 있기를 빕니다. 하느님께 “예.” 라고 대답할 용기를 찾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온갖 고단함을 이겨 내어, 우리의 삶이 마침내 하느님과 형제자매들과 온 세상을 향한 찬미의 노래가 되기를 빕니다.

동정 마리아시여, 저희와 함께해 주시고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사제들을 위한 기도



- 영원한 사제이신 예수님,
구원을 분반으려는 사제들을 지켜주시어
어느 누구도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소서.
- 주님의 영광스러운 사제직에 올라
날마다 주님의 성체와 성혈을 이루는
사제들을 언제나 깨끗하고 거룩하게
지켜주소서.
- 주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사제들을
세속에 묻히지 않도록 지켜주소서.
- 사제들이 하는 모든 일에 강복하시어
온중의 풍부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 저희로 말미암아 세상에서는 그들이
더없는 기쁨과 위안을 얻고
천국에서는 찬란히 빛나는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 ◎ 아멘.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요한 10, 30)

성소를 위한 기도

- 좋은 목자 예수님,
주님께서서는 사도들을 부르시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나이다.
- 비오니, 오늘도
믿음직한 젊은이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소서.
- 온 인류의 구원을 바라시는 주님,
온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빛과 사랑의 불을 갈망하고 있사오니

- 많은 젊은이들이 그 갈망에 응답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 주님, 슬기로운 이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께 자신을 봉헌하여
복음의 완덕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 또한 주님의 몸인 교회에 봉사하며
도움과 사랑을 애타게 바라는 이웃들에게
헌신하게 하소서.

◎ 아멘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성모님은 이 시련을 극복하게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모 성월은 하느님 백성이 복되신 동정 마리아를 향한 사랑과 신심을 더욱 각별히 온 마음을 다하여 표현하는 때입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5월에 집에서, 가정 안에서 묵주기도를 드립니다. 감염병의 세계적 확산으로 여러 제약이 있는 이때에 이처럼 가정 차원에서 드리는 묵주기도는 영성적 관점에서도 우리에게 더욱더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따라서 저는 5월 한 달 동안 모든 이가 **가정에서 묵주기도**를 드리는 아름다움을 재발견해 나가도록 제안하고자 합니다. 개인적으로 또는 여러 사람이 함께 묵주기도를 바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여러분이 판단하여 어느 쪽이든 가능한 방식으로 묵주기도를 바치면 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묵주기도를 바치는 비결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의 소박함입니다. 따라 하기에 좋은 기도 형태들은 인터넷으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저는 묵주기도를 바칠 때 드릴 수 있는 **성모님께 바치는 기도문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전해 드립니다. 저 역시 5월 한 달 동안 여러분과 영적으로 하나 되어 이기도를 바칠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두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서한에 기도문들을 첨부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얼굴을 다 함께 바라봅시다. 이는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 가정으로 더욱 하나 되어 이 시련을 극복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하여, 특히 가장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부디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큰 사랑을 담아 교황 강복을 보냅니다.

“성모 마리아님, 저희의 길을 밝혀 주소서”

성모 마리아님,
언제나 구원과 희망의 표징으로
저희의 길을 밝혀 주소서.

병자의 치유이신 성모님,
늘 굳은 믿음을 간직하시어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의 고통에 함께하셨으니
저희도 성모님께 의탁하나이다.

저희의 구원이신 성모님,
갈릴래아 카나에서처럼
이 시련의 때가 지나고
다시 기쁨과 축제의 때가 찾아올 수 있도록
성모님께서서는 저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마련해 주실 것을 믿나이다.

거룩한 사랑의 성모님,
저희가 아버지의 뜻을 충실히 따르고
예수님 말씀대로 행동할 수 있게 도와주소서.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몸소 저희의 고통을 짊어지시고 저희의 슬픔을 떠안으시어
저희를 부활의 기쁨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천주의 성모님,
당신의 보호에 저희를 맡기오니
어려울 때에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항상 모든 위험에서 저희를 구주소서.
영화롭고 복되신 동정녀시여.



“천주의 성모님, 당신의 보호에 저희를 맡기나이다.”

천주의 성모님, 저희의 어머니, 전 세계가 고통과 불안에 시달리는 이 비참한 상황에서 당신의 보호에 저희를 맡기나이다.

동정 마리아님, 코로나바이러스의 전 세계적 확산 아래 놓여 있는 저희를 자애로이 굽어보소서. 사랑하는 이의 죽음에, 때로는 가슴이 미어지는 매장 방식에 상심하며 울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소서. 앓고 있는 이들을 염려하면서도 확산 방지를 위해 가까이 있어 줄 수 없는 사람들에게 힘을 북돋워 주소서. 불확실한 미래를 염려하고, 경제와 일자리에 미칠 영향에 걱정하는 이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주소서.

천주의 성모님, 저희의 어머니, 저희를 위하여 자비로운 아버지 하느님께 빌어 주시어, 이 모진 시련이 끝나고 희망과 평화가 새롭게 동트게 하소서. 카나의 혼인 잔치에서 그러하셨듯 거룩하신 당신 아드님께 청하시어, 환자와 희생자의 가족들이 성자께 위로를 받고 열린 마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이 긴급 상황의 최일선에서 다른 이들을 구하고자 목숨의 위험도 마다하지 않는 의사와 간호사, 보건 종사자, 자원봉사자들을 보호하소서. 그들의 영웅적 노고에 함께하시고 그들에게 힘과 선의와 건강을 주소서.

밤낮으로 환자들을 돕는 사람들을 곁에서 돌보아 주시고, 복음에 충실히 따라 사목적 배려로 모든 이를 돕고 지원하는 사제들 곁에 함께해 주소서.

복되신 동정 성모님, 과학자들의 정신을 밝혀 주시어 그들이 이 바이러스를 물리칠 올바른 해결책을 찾게 하소서.

국가 지도자들을 도우시어, 그들이 지혜와 배려와 관용으로 생활필수품 부족에 시달리는 이들을 지원하고, 헤안과 연대로 사회적 경제적 해결 방안을 수립하게 하소서.

지극히 거룩하신 마리아님, 저희의 양심을 일깨워 주시어, 군비 증강과 확충에 사용된 막대한 자금이 방향을 바꾸어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재앙을 예방하는 적절한 연구 증진에 쓰일 수 있게 하소서.

사랑하는 어머니, 저희가 위대한 한 가정의 일원임을 깨닫고 저희를 하나 되게 하는 유대를 인식하여, 형제애와 연대의 정신으로 수많은 가난하고 비참한 상황에 도움이 되게 하소서. 확고한 믿음과 인내로운 봉사와 향구한 기도 안에 머물도록 저희에게 용기를 주소서.

근심하는 이들의 위안이신 마리아님, 곤경에 빠진 모든 당신 자녀를 보듬어 주시고 하느님께 간구해 주시어, 하느님의 전능하신 손길로 저희가 이 비참한 감염병 확산에서 해방되어 다시 일상의 평온한 삶을 되찾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구원과 희망의 표징으로 저희 길을 밝혀 주시니 당신께 저희를 맡기나이다. 아멘.

“Rediscover the Beauty of Praying the Rosary at Home”



Dear Brothers and Sisters,

The month of May is approaching, a time when the People of God express with particular intensity their love and devotion for the Blessed Virgin Mary. **It is traditional in this month to pray the Rosary at home within the family.** The restrictions of the pandemic have made us come to appreciate all the more this “family” aspect, also from a spiritual point of view.

For this reason, **I want to encourage everyone to rediscover the beauty of praying the Rosary at home in the month of May. This can be done either as a group or individually;** you can decide according to your own situations, making the most of both opportunities. The key to doing this is always simplicity, and **it is easy also on the internet to find good models of prayers to follow.**

I am also providing two prayers to Our Lady that you can recite at the end of the Rosary, and that I myself will pray in the month of May, in spiritual union with all of you. I include them with this letter so that they are available to everyone.

Dear brothers and sisters, contemplating the face of Christ with the heart of Mary our Mother will make us even more united as a spiritual family and will help us overcome this time of trial. I keep all of you in my prayers, especially those suffering most greatly, and I ask you, please, to pray for me. I thank you, and with great affection I send you my blessing.

Pope Francis

FIRST PRAYER to Our Lady

O Mary,
You shine continuously on our journey
as a sign of salvation and hope.
We entrust ourselves to you, Health of the
Sick,
who, at the foot of the cross,
were united with Jesus' suffering,
and persevered in your faith.

"Protectress of the Roman people",
you know our needs,
and we know that you will provide,
so that, as at Cana in Galilee,
joy and celebration may return
after this time of trial.

Help us, Mother of Divine Love,
to conform ourselves
to the will of the Father
and to do what Jesus tells us.
For he took upon himself our suffering,
and burdened himself with our sorrows
to bring us, through the cross,
to the joy of the Resurrection.
Amen.

We fly to your protection,
O Holy Mother of God;
Do not despise our petitions
in our necessities,
but deliver us always
from every danger,
O Glorious and Blessed Virgin.

.....

THE SECOND PRAYER

"We fly to your protection, O Holy Mother of God".

In the present tragic situation, when the whole world is prey to suffering and anxiety, we fly to you, Mother of God and our Mother, and seek refuge under your protection.

Virgin Mary, turn your merciful eyes towards us amid this coronavirus pandemic. Comfort those who are distraught and mourn their loved ones who have died, and at times are buried in a way that grieves them deeply. Be close to those who are concerned for their loved ones who are sick and who, in order to prevent the spread of the disease, cannot be close to them. Fill with hope those who are troubled by the uncertainty of the future and the consequences for the economy and employment.

Mother of God and our Mother, pray for us to God, the Father of mercies, that this great suffering may end and that hope and peace may dawn anew. Plead with your divine Son, as you did at Cana, so that the families of the sick and the victims be comforted, and their hearts be opened to confidence and trust.

Protect those doctors, nurses, health workers and volunteers who are on the frontline of this emergency, and are risking their lives to save others. Support their heroic effort and grant them strength, generosity and continued health.

Be close to those who assist the sick night and day, and to priests who, in their pastoral concern and fidelity to the Gospel, are trying to help and support everyone.

Blessed Virgin, illumine the minds of men and women engaged in scientific research, that they may find effective solutions to overcome this virus.

Support national leaders, that with wisdom, solicitude and generosity they may come to the aid of those lacking the basic necessities of life and may devise social and economic solutions inspired by farsightedness and solidarity.

Mary Most Holy, stir our consciences, so that the enormous funds invested in developing and stockpiling arms will instead be spent on promoting effective research on how to prevent similar tragedies from occurring in the future.

Beloved Mother, help us realize that we are all members of one great family and to recognize the bond that unites us, so that, in a spirit of fraternity and solidarity, we can help to alleviate countless situations of poverty and need. Make us strong in faith, persevering in service, constant in prayer.

Mary, Consolation of the afflicted, embrace all your children in distress and pray that God will stretch out his all-powerful hand and free us from this terrible pandemic, so that life can serenely resume its normal course.

To you, who shine on our journey as a sign of salvation and hope, do we entrust ourselves, O Clement, O Loving, O Sweet Virgin Mary. Amen.



본당 미사 중계

<http://www.stpaulchung.org/mass.html>

• 성 정바로 성당 웹사이트를 통해 **본당 미사를 생중계**하니 신자들은 가정에서 미사 참례를 하시기 바랍니다.

1. 매일 **오전 10시와 오후 5시**에 사제관 경당에서 사제들이 미사를 봉헌합니다. 교우들은 **평화방송** 또는 **유튜브 TV 매일미사**를 시청하시며 함께 참례하시고 신영성체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2. 매일 **밤 9시**에 신자들을 향해 사제의 강복으로 **한마음 기도 시간**을 갖고 있으니 교우 여러분들도 같은 시간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한반도의 평화, 본당의 일치와 화합을 위하여 **주모경 1회**
- ② **코로나-19 극복을 청하는 기도**
- ③ **코로나-19의 피해자들과 의료진 및 봉사자, 각자의 지향으로 묵주기도 5단**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성사에 대하여

- **병자성사 및 병자 영성체** : 죽음에 임박한 경우에 한해서 시행합니다.
- **혼인 및 장례예식** : 혼인예식을 연기하지 못하는 상황과 장례예식은 10명 이하의 직계 가족 참석하에 거행할 수 있습니다.
- **신영성체** : 영적(마음)으로 성체를 모시는 것으로, 준비가 부족하거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실제로 성체를 영하지 못하는 경우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과 사랑 안에서 성체를 모시고자 하는 원의를 지닌다면 성체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신영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의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아멘.

매일미사 책 우편 송부

- ‘매일미사’ 구독자 중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성명(세례명), 주소, 연락처**를 사무실이나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한성은 모니카(571-331-0391)

본당 승격 25주년 준비

- 코로나-19 상황으로 본당 승격 25주년 준비 작업에 차질이 많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묵주기도 100만단 봉헌, 성경 필사 및 성경 읽기, 기념집을 위한 원고, 기념 표어 공모에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 주교님 사목 보조비(BLA)

- 주교님 사목 보조비에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리 본당은 **BLA 목표 금액의 77%**를 달성했습니다. 아직 봉헌하지 못하신 분들께 조금만 더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무실 업무 안내

-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성당 사무실은 예전과 같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고해성사, 장례예식, 개별 미사 지향, 교무금, 주교님 사목 보조비(BLA) 등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실에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03-968-3010)

버지니아 성 정바로 성당 제공 **KACM TV 하이라이트**



- 5월 7일(목) 오후 5:00-6:00 • **특집: 임 따라 한평생 -**
- 5월 8일(금) 저녁 8:00-9:00 **음악과 함께 한 인생. 백남용 신부(1)**
- 5월 10일(일) 오전 6:00-7:00



AM 1310 **라디오 가톨릭 프로그램**

- 5월 6일(수) 오전 6:15-6:45 | 5월 9일(토) 오전 8:00-8:30
- 워싱턴 가톨릭 소식 • 윤원진 신부님의 강의 ‘위대한 성인’ (6편)

※ www.dc1310.com에서 ▶ **생방송** 듣기를 선택하시면 스마트폰을 통해 생방송으로 청취를 하실 수 있습니다

RE/MAX Gateway 부동산 www.Rachael.Kim.com 레이첼 김(아네스) 703-652-5790 Cell. 703-774-8945	정재민 치과 센터빌스퀘어(Centreville Square) 정재민(미카엘) DMD, PC 703-825-1191	허진 변호사 attorneyhuh24.com 민사, 형사, 소송재판 전문 허진(세바스찬) 703-288-1515	문스 자동차 정비 VA 인스펙션 오일체인지, 각종 자동차정비 이병일 (다니엘) 703-266-1983	재노 오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재노 오 (로사) 703-772-7275
마이키즈 소아/청소년과 mykidspediatricians.com 정소연(크리스티나) 703-865-5437	영스 헬스케어 간병사,간호사,물리치료 서비스 김경해 (아네스) 703-647-0292	김돈현 가정의학전문의 Fairfax Family Medicine Center Michael D. Kim, MD 703-591-4100	베스트 사인 간판 / 네온 / 박스 / 현수막 전광판 / 배너 / 메뉴판 703-887-1515	뉴잉톤 오토바디 자동차 바디, 정비, 페인트 김명곤(바오로) 703-455-0008 Cell. 571-243-5037
안 아픈 세상(양방/한방) 교통사고보험 인정 병원 척추신경과, 치료맞사지과 한방나라 이현찬 한의원 703-658-5100	시티 종합 보험 자동차, 주택, 비즈니스, 생명 김수현 (엘리사벳) 703-352-1073	Lee's Heating & Air 히팅 & 에어컨 이일우 (베드로) 703-675-8009	골프 레슨 성인레슨 및 원포인트 가능 초보, 학생, 여성 골프 환영 레지나 703-832-7155	소아전문 치과 Pediatric Dental Care Dr. John Han (한장협) Fairfax 703-383-3434 Springfield 703-992-7100
시원 냉난방 에어컨, 히팅, 플러밍 김연철 (윌리엄) 703-362-7770	민기호 내과 John Min M.D. 703-462-8711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 발 통증 병원 Dr. 이현훈 (마르코) 센터빌,챌러리 703-429-4622 락빌 MD 301-231-7588	생명보험 · 메디케어 은퇴연금 · 사업체 보험 홍마태오 703-969-8956 박소피아 703-969-8954	커머셜 김준 부동산 상업용, 투자용 건물 매매 리태일 / 오피스 리스 202-384-7301
한미 소독 가정집, 상점 (STORE) 하홍엽 (요한) 703-451-3322	와니 건축 In & Out 핸드맨 Service 부엌, 화장실, 텍 권태완 (빈센트) 571-331-6811	민 자동차 정비 703-869-9691	원 통증 · 재활 Woodbridge 지역 메디케어, 각종 보험 571-659-2540	뉴욕라이프 생명보험, 은퇴연금 자녀 저축보험 박수미(미카엘라) 571-263-1033
정수정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정수정 (안나) 703-855-8575	영스 히팅 에어컨, 히팅 703-728-3160	석성현(요한) 신경내과 MD 두통, 치매, 파킨슨, Stroke, 손떨림 Vienna, Tysons Corner 근처 703-828-3373	제니스김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제니스김 (베로니카) 571-723-6172	Euromotor Cars Mercedes-Benz 유스티노 한 703-855-8710
Kim's Auto Service 자동차 정비 703-425-4600	영스 노인 복지센터 주정부 보조 및 저렴한 개인 비용 703-988-2044	박정훈(요한) 치과 Family Dentistry 마운트 버넌 병원 근처 703-679-8959	CORE 물리치료 통증, 재활치료 전문 (메디케어) 김우기(안드레아), DPT 703-865-6455	ASSA 종합보험 메디케어 상품, 카이저 보험 현재 플랜에 관한 무료 상담 문의: 최 클라라 703-649-2110
워싱턴 노인 복지센터 데이케어, 홈케어 문의: 데레사 데이케어 703-963-1234 홈케어 703-850-1100	CHA GROUP 앤디차 공인회계사 세금보고 & 회계업무 www.GroupCha.com 703-678-8848	경희 바울 한의원 비만, 중풍, 통증, 내과 전문 변형식(바오로) 703-907-9299	그레이스 홈 케어 노인/중증 환자/산모 케어/물리치료 전문 간호 석, 박사 운영중 대표 김 아네스, RN 703-865-7370	프렌즈 헬스케어/데이케어 간병 및 물리치료 데이케어 서비스 임 에스더 703-819-0360
윤 조셉 변호사 www.yoonfirm.com 교통법, 형법, 개인상해, 파산 재판전문 변호사 703-260-6060	재무설계 생명보험, 학자금, 은퇴연금, 롱텀케어 개개인에 맞는 플랜 설계 탁지은(안젤라) 202-431-0627	DK 건강 보험 1955년생 메디케어 무료상담 및 신청 정문기(윌리엄) 703-598-3316 정선화(도로테아) 703-862-5395	클로이 양 부동산 Giant Realty Inc. 다운사이징 / First time home buyer 양윤정(카타리나) 703-865-1026	GCOOP 케어셀라 천연 고기능성 화장품 맑고 투명한 물광피부 약속 김은희(글라리아) 703-732-3836

교리 · 하상학교 안내

예비자 교리(교리 기간 6개월)

· 주일: 11:40-12:40 (하상관)
 예비자나 전입자 또는 방문자는
 성당 입구 봉사센터 또는
 사무실에서 등록을 받습니다.

하상한국학교 (Hasang Korean School)

· 정규학기 : 일반 Public School 과 동일, 매주 토요일
 · 여름학기 : 매년 6월에 개강

하상성인학교 (Hasang Adult School)

· 불학기·가을학기 운영 / 매주 화·금

하상 한국학교 / 성인학교 연락처

· (703) 968-3070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Tel (703)968-3010 | Fax (703)968-3013

Home Page : www.stpaulchung.org

E-Mail : sthasang@gmail.com

PARISH STAFF 주임신부 백인현 (안드레아) | 보좌신부 강두영 (암브로시오) | 사도회장 황원균 (알렉산더)